

역사소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아서

소설가 김탁환

장은수 · 민음사 편집장(황금가지)



새

해 벽두에 <중앙일보>는 「2004 내가 연다」라는 기획물에서 2004년을 빛낼 문화인으로 소설가 김탁환을 선정해 보도했다. 제목은 <드라마·만화·오페라... 모든 분야에 小說 퍼뜨린다>였다. 이 제목은 30대 중반의 젊은 작가 김탁환이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일으키고 있는 눈부신 활약을 한 줄로 집약해서 보여 준다.

소설가 김탁환은 반구대 암각화를 배경으로 한 『열두 마리 고래의 사랑 이야기』(1995)를 발표한 이래 10년 동안 『불멸』·『누가 내 애인을 사랑했을까』·『허균, 최후의 19일』·『압록강』·『독도 평전』·『나, 황진이』·『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방각본 살인 사건』 등 주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중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현실 권력(선조)에 맞서 영원한 삶을 꿈꾸었던 세 사내(이순신, 원균, 허균)의 운명을 치밀한 고증을 통해 꼼꼼하게 그려낸 『불멸』은 올해 7월부터 KBS에서 국내 드라마 사상 최대인 400억원 이상의 거금을 투입해 대하 역사 드라마로 방영할 예정이다. 그에 맞추어 작가는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청년 이순신의 모습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전쟁의 상대편인 일본 측의 움직임을 대폭 추가하는 등 기존의 작품을 완전 개작하고 분량도 두 배 이상으로 늘린 전면 개정판을 5월에 출간한다. 또한 이 작품은 올해 안에 반디출판사에서 30여 권에 이르는 아동판 만화로 출간되며, 이미 작년 11월 중순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공연된 바 있는 오페라는 현지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올해 중순에 비엔나 등지에서 공연한 후 연말에는 국내 공연을 추진 중이다. 이 오페라는 기존의 한국 관현 오페라들과는 달리 대전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성곡 오페라단이 기획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러시아 음악가들이 작곡하고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대본은 작가가 직접 썼다.

언젠가 사석에서 김탁환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소설로 재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소설로 미루어 보건대 그중에서 그의 관심은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조선 중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 중종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걸쳐 연이은 쿠데타와 사화를 거쳐 지배 집단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어느 정도 끝난 시기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권력 투쟁이 ‘당쟁’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시스템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 본격적으로 침투해 새로운 지배 구조로 정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투쟁의 과정은 송강 정철, 교산 허균, 서포 김만중, 고산 윤선도 등 수많은 문인 정치가들을 낳았으며, 정치와 예술을 둘러싼 이들의 고민과 갈등이 폭죽처럼 피어나 후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설가로서 김탁환은 이들이 살아간 시기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와 예술의 긴장’이라는 386세대 특유의 관심사를 역사적 지평 위에서 펼쳐 놓고 있다. 그러한 그의 관심은 특히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을 다루고 있는 『허균, 최후의 19일』과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저자 김만중을 다루고 있는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에서

● ● ●
새해 벽두 <중앙일보>가 「2004 내가 연다」라는 기획물에서
2004년을 빛낼 문화인으로 선정해 보도된 소설가 김탁환



● ● ●
두 개의 문명 속에서 갈등하고 길항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청나라를 통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서양 근대의 문물들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을 그려낸 『방각본 살인 사건』

아주 농밀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조선 사회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해체·재구축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양란이 모두 동양의 후퇴와 서양의 등장이라는 세계사적 격변을 배후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기를 서양의 근대와 만나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서양의 충격을 나름대로 소화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이 나타나서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왔기 시작했으며, 이를 당대의 역사적 지평 위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우리를 해명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서양 근대 문명의 충격과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근대에 대한 김탁환의 관심은 등단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특히 두 개의 문명 속에서 갈등하고 길항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청나라를 통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온 서양 근대의 문물들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을 그려낸 『방각본 살인 사건』에 잘 드러나 있다.

김탁환이 이 시기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설’ 때문이기도 하다. 최초의 한문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그 이전에 이미 나왔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허균의 『홍길동전』, 조성기의 『창선감의록』, 김만중의 『구운몽』 등 우리 고전 소설의 명작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소설이 하나의 예술 형태로서 의식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필사본 시대를 거쳐 방각본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월회맹연』·『쌍천기봉』 등 전체 분량이 수백 권에 이르는 대하소설들이 시장에 나왔으며, 소설이 서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서의 소설이 어떻게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렀는가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김탁환은 『허균, 최후의 19일』·『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방각본 살인 사건』을 통해 필사본에서 방각본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시장 경제에 편입되는 소설의 운명을 그려내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김탁환은 중종에서 영조에 이르는 300여 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근대인의 전사(前史)를 탐색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동시에 근대를 대표하는 예술 형식인 ‘소설’의 운명을 들여다봄으로써 현재의 문화를 해명하려는 대단한 야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김탁환은 황진이, 이순신, 허균, 임경업, 김만중, 박지원 등의 지식인들을 통해 격변하는 조선 사회의 운명을 내밀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해 왔다. 그에 덧붙여 그는 역사소설의 금기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인물들의 내면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려고 애쓰으로써 한국 역사소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꾸준히 그의 소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야심은 역사에 대한 말초적 흥미와 야담류가 결합한 가벼운 읽을거리로 전락하기 쉬운 역사소설에 치밀한 고증과 심오한 상상력을 결합한 예술적 품위를 부여하여 새로운 차원의 역사 소설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그의 내밀한 기획과 맞물려 매번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한국 문단에 일대 충격을 주고 있다.

『불멸』의 경우, 영웅적 활약상에 초점을 맞춘 종래의 이순신 소설과는 달리 ‘고민하는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처음으로 다루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김훈의 『칼의 노래』가 담고 있는 세계를 미리 선취한 수작이다. 시간상으로 『불멸』에 이어지는 『허균, 최후의 19일』은 드라마 <천둥소리>의 원작으로, 일대 풍운아이자 혁명가인 허균이 조선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된 내면의 고민과 열정을 꼼꼼하게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하여금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에서 개혁 혁명가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2002년에 발표한 『나, 황진이』는 역사 소설에서는 드물게 일인칭 독백체를 시도함으로써 예술가 황진이의 참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소설 사이사이에 삽입된 우리 고전 시가와 산문의 아름다움은 독자들을 한껏 매료시킨 바 있다. 작년에 발표되어 영화로 제작될 예정인 『방각본 살인 사건』은 개혁을 꿈꾸는 절대 군주인 정조와 그를 둘러싼 연암 박지원, 담헌 홍대용을 비롯한 백담파의 젊은 실학자들 이야기를 추리소설이라는 형식에 얹어서 보여줌으로써 역사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헝가리의 미학자 게오르그 루카치는 ‘역사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삶의 문제들이 직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개체들의 운명을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역사소설가가 그 시대의 핵심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가장 생생하게 겪어내는 인물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탁환은 황진이, 이순신, 허균, 임경업, 김만중, 박지원 등의 지식인들을 통해 격변하는 조선 사회의 운명을 내밀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해 왔다. 그에 덧붙여 그는 역사소설의 금기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인물들의 내면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려고 애쓰으로써 한국 역사소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꾸준히 그의 소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